

주의 공헌 대축일

# 숲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마태 2,11).

기도서 237년 (A해)

제1독서 : 이 사 60,1-6

제2독서 : 에 페 3,2-3a. 5-6

복음 : 마 태 2,1-12

강론



## 내가 보낸 성탄선물

김 환 철 신부

1987년, 새해의 태양이 밝았습니다. 색깔은 달라도 느낌이 다르듯이 새해가 주는 의미도 경우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금년은 우리 교구가 자치교구 설정 50주년을 맞는 해로써 다른 어느 해 보다도 더욱 하느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는 성년(聖年)이 될 것임을 우리는 추호도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동박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친 예수 공헌 대축일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지만 막상 상대방에게 기쁜 선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요.

나는 이번 성탄 때 내 후보성인의 본명으로 영세 받은 스테파노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낸 일이 제일 값진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카드 한 장이 무슨 선물이 되겠느냐?고 하겠지만 그러나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큰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스테파노 가정을 방문했을 때는 아무도 교우가 없었고 가정방문 중에 예비교우 집이라기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 집에 평화.”

“또한 여기 사는 모든이에게 평화.”

축성예식을 마치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열 방에도 식구가 또 하나 있다”는 반희장님의 말씀에 “소아마비 자식놈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하는 아빠의 탄식 한 마디에 금방 분위기가 우울해졌습니다. 나는 수녀님에게 강제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부끄러움에 끌려 나온 아들은 17세 가랑 되어 보였습니다.

나는 같은 기도를 거듭해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집에 평화” “또한……” 그후 가족들도 전부 영세를 받았고, 소아마비 스테파노는 가끔 성당 문앞에서 숲정이 주보를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해가 거듭할 수록 스테파노는 내 머리에서 잊혀져 갑니다, 그래서 나는 성탄 카드에 따스한 정을 담아 다시 식어가는 불꽃을 피웠습니다.

친애하는 교우 형제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축성되는 순간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기쁨도 평화도 사랑도 우리 마음과 함께 축성되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기쁨, 사랑, 평화는 장애자들까지도 하느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87년, 뜻깊은 새해를 맞으면서 이 좋은 선물을 모든 이에게 베푸는 한 해가 되시길 빕니다. (교구 총대리)



## 작은 불씨를

새 날이 밝았다. 우리 교구로 보아서는 자치교구 설정 50주년을 기념하는 새해가 시작되고 있다. 한국 천주교회가 200주년을 맞아 「이 땅에 빛을」 밝히자고 외친 3년 뒤인 지금 우리는 「밝히오리다」라고 화답하고 있다. 교회의 영원한 사명이 빛을 밝힘에 있을진대, 50주년을 맞는 우리의 자세는 남달라야 한다. 그것은 50주년의 의미가 단순한 시간의 흐름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우리는 밝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주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빛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가진 빛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충만되어야 할 사랑이리라. 지금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가정 안에서는 사랑이 교환되고 있는가? 본당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이 나누어지고 있는가? 본당과 본당, 특히 도시 본당과 농촌본당 사이에 사랑이 교류되고 있는가? 먼진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밝힐 빛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빛으로 충만되고 뜨거워질 때, 우리 주위도 따뜻해지고 밝아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어두웠던 지난 한 해를 잊을 수가 없다. 정치적으로도 어두웠고 사회적으로도 그러했다. 지난 성탄전야에 서울의 철거민촌에서 울려진 미사봉헌 소식이 지난 한 해를 잘 말해주는 우울한 우리의 한 모습이다.

괴물같이 떠어 버티고 선 구조악이 한 순간에 무너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봄날의 따스한 온기는 대지를 녹이고 새싹을 틔운다. 50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이 지역사회를 밝힐 조그마한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내일은 결코 어둡지 않다. 우리가 지닌 작은 불씨를 살리자.

## 숲정이 산책



뜻깊은 해가 되도록 협조하십시오



□ 새해 평신도 단상

“새 아침 지금에도”

이 창 옥

1987년은 「성체와 교회의 해」를 맞이함에 새롭게 얻어지는 실체가 더욱 필요로 하게 된다. 가정성화에서 교회와의 연계에서 교회의 삶의 방법이 성체의 신비 속에 발견되고, 사회 안에서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해라 하겠다. 우리는 이 신비의 거룩한 새해에서 정성된 책임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알고자 하며, 또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십자가상 앞에서 진정으로 빌어보는 것도 자신을 사랑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흔하게 쓴다. 우리가 이 사랑의 생활을 실현하기는 그리 쉽지 않지만 사랑의 생활을 나눔의 생활로 엮을 때 일치의 생활로 발전하여 보면 역시 나눔(부부, 사회)의 생활에서 온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랑은 생활의 핵인 것으로 정의하고 싶다.

그래도 해마다 새해를 맞으면 지난해를 회고케 한다. 나의 신앙생활은 서툰어치도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가시덩굴 잡아가며(사회적 번거로움) 가시에 찢려 피가 흘러도 그것만은 놓치지 않겠다는 다구진 체험을 주님이 주신 유일한 나의 신앙이라하면 신앙이라 하겠다. 이것이 참사랑이라면 더욱 빛을 발할 것이고, 또한 묵은 일들을

거울되게 하여 새 아침 태양처럼 새해를 밝고 맑게 그리고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싶다.

「이제 이 땅에 만연된 어둠과 악을 건어내며 우리들의 신앙의 빛을 구석구석 밝히겠다」는 각오와 새로운 결심의 표현의 말이 갖는 뉴앙스가 나의 머리에 강하게 자리한다. 가정에서 교회로 엮어지는 사랑은 구원의 희망이요, 우리가 새롭게 추구해야 할 삶의 참 모습이다.

따라서 1987년은 자치교구 설정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므로 여기에 따른 제반 사업과 행사가 신앙적 차원에서 적극 참여되어야 할 것이며, 신앙적 충정에서 우리나라는 정성으로 이뤄져야 하겠다.

거자씨 같은 시간 속에 내가 바라고 내가 가는 길에 뚜렷한 목표가 있어 그 목표를 향해 기운차게 뛸 때 아마도 기쁨의 빛이 충만할 것으로 믿는다. 이 빛이 여무는 내일의 시간이 열리는 신앙의 교회 안에서 이 기쁨을 함뿍 나누어 보자.

떡이나 아쉬웠던 회역을 남기지 않는 아나스런 마음과 마음들의 향훈이 가정에서 교회로, 나아가 사회로 가득 스며들어 주님께서 바라는 사랑으로 영결어 보자.

—새해를 맞으며— (효자동 천주교회)

□ 성서교실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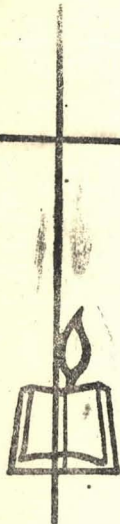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마태 2:11).

예수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자 마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들은 점성예에 의해서 유다인의 탄생을 알고 그를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다. 헤로데는 유다인의 왕이 탄생되었다는 말을 듣고 자기 위치를 불안하게 생각한 나머지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동방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지칭하는지 확실히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점성술이 성했던 바빌론인지, 박사들의 예물로 보아서 아라비아인지 아니면 페르시아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시기와 살의는 폭군의 특징이다. 대사제, 성서학자들에게 물어서, 유다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 헤로데는 이미 자기 위치를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살의를 품고 박사들에게 탄생한 장소를 알려 달라고 했던 것이다. 예수의 생명은 참으로 풍전등화라도 같이 위험했던 것이다. 당시 세상은 「팍스·로마나」를 구가하고 있었다. 유다 종교가들은 쓸데없는 종론(宗論)에만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참으로 상황은 하느님과 옛 뱀인 사탄 간의 싸움의 백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다(묵시 12장 참고).

박사들은 헤로데의 그러한 악의도 모르고 그저 베들레헴으로 떠났던 것이다. 그들은 유아를 발견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지참했던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바쳤던 것이다. 유다 사람들은 구세주가 탄생한 줄도 모르고 있었으며, 헤로데 왕은 영아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사이에 이 교박사들은 수천리가 멀다하지 않고 방문하여 환희에 넘쳤던 것이다. 참으로 무엇이냐고 말할 수 없는 「아이로니컬」한 이야기라 우리는 말할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이런 식(式)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메르키올은 유향을, 가스발은 몰약을, 발다살은 황금을 가져왔다고 한다. 황금은 그리스도의 왕자를, 유향은 사제직을, 몰약은 예언직을 표시한다고 한다. 하느님의 백성은 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 내과 전문의

위 상 양 내 과 의 원

전주시 교사동 2가 1-13

(완주농협·우신포텔 앞)

☎ 병원 4-1225 자택 4-9886

위상양(프란치스코) 김병희(글라라)

가톨릭교리 신학원 병설

시청각 통신 성서교육부 신입생 모집

1. 신구약성서 입문과정

- 내용 : 신구약성서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2년 과정
- 자격 : 고졸 정도의 학력소유자(교파 초월)
- 구비서류 : 입학원서, 증명사진 3매
- 원서교부 및 접수 : 매년 1월~2월 7일까지
- 원서우송을 원하는 분은 3,700원 소액환을 본 교육부로 보내주시시오

2. 입학원서 및 신청서 교부처 : 전국 성바오로서원



# 교 구 소 식

1. 신학생 사목연수회 : 6일~14일
2. 젊은이 형제의 모임 : 4일 오후 5시, 장소-이리 창인동천주교회 회합실
3. 사랑의 다리 후원회 월례미사 : 5일 오전 10시30분, 장소-사회복지회관
4.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 1월 8일, 장소-덕진천주교회
5. 제 2기 교사학교 개강 : 일시-1987년 1월 12일(월)~1월 19일(월) 매일 오전10시~오후 5시, 장소-가톨릭센터 교육관 강의실  
 내용-교리교수법·성서·전례·그리스도론·구원론·교회론·마리아론·성사론·한국교회사·윤리신학·청소년이해·레크리에이션·청소년활동·리더쉽·상담지도론·프로그래밍, 수강료-2만원(자료 포함), 단 점심은 각자해결  
 대상-초등부 교리교사 및 중·고 지도자  
 접수-1987년 1월 6일(화) 오후 4시까지 교육국, 접수수 70명
6. 테클라 모임 : 1월4일 오후2시, 성바로로 여자수도회(3-3398), 장소:성바로로서원

## 10만인 성지순례

1코스 : 전주 순정이 → 치명자산(오후 1시~4시)

일	요일	담당신부	일	요일	담당신부
4	일	법석규신부	11	일	김동준신부

※ 가정기도 독서 : 시편 91, 1~16 마태오 2, 1~12

### 잡간!

새해에는—  
 1987년 정묘(丁卯)년이 밝았다.  
 우리에게 특별히 자치교구 설정 50주년 기념의 해라서 새해의 의미가 더욱 크다 하겠다. 지나간 해에 대한 미련은 항상 있기 마련이지만 또 새롭게 주어지는 새해를 향해 힘차게 나가야겠다.  
 1987년의 주교단 공동으로 발표한 사목교서는 「성체와 교회」이다. 지난해 노력했던 가정공동체의 성화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교회공동체의 성화를 더욱 노력하자는 요지이다.  
 본 교구장 박정일 주교는 자치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사목교서를 발표했다.  
 교구설정 50주년을 맞이하여 조상들의 탁월한 신앙과 모범된 생활을 밑거름으로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쇄신함으로써 교회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자고 촉구하면서 금년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5가지 정신(순교정신, 공동체정신, 봉헌정신, 선교정신, 애연자정신)과 이에 대한 실천적 요구를 제시했다(교구 사목교서 참조).  
 자! 또 다시 새해는 밝았다.  
 하느님이 주신 새로운 날수들이 보람과 기쁨과 은총의 해이길 서로 빌어주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50주년의 모든 일들을 성실한 마음으로 기쁘게 마무리 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느님에게나 서로에게 참으로 겸손하자.

## 요심이(700) 김병오

주님! 1987에는 KBS가 공정보도를 하여 시청료납부 거부운동이 또 다시 없도록 해주십시오

부천 경찰서 성고문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종속과 전지행정의 표본인 독립기념관 화재사건 같은 것이 또 다시 없게 해주십시오

시위하는 학생을 작정학생으로 몰아붙이는 일이 없도록 우리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 교사 초빙

1. 과목 : 가정, 한문, 수학, 교련, 지학, 생물
  2. 자격 : ① 교육경력자  
② 사학재단연합회 임용고시 합격자
  3. 구비서류 : 이력서 1부, 호적초본 1부, 자격증(원본) 1부, 임용고시 합격증(원본) 1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사본) 1부,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교육경력증명서(도교위발급) 1부  
※ 신자는 세례증명서 1부
  4. 제출처 : 성실여자중고등학교 서무과(☎3244)
  5. 제출마감 : 1987년 1월 7일
- 학교 해성학원  
법인

### 성훈치과

관동도로 사거리  
(전일관광 2층)  
☎ 82-9900  
최성훈(빈첸시오)

\*혼수(회갑)웃감 || 도매상  
\*특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각종 속 일체 ||  
\*키렌지

### 서울주단

☎ ③0453 ⑥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소흥영외과의원

외과전문의  
소흥영(요한)  
유인경(유리안나)  
전주시 서노송동 602-21  
(전주시청 앞)  
병원 ☎ 3668  
자택 ☎ 8120

###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③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곤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1. 금주는 성체주간입니다. 성체성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하나가 되도록 기도 합시다
2. 본당 율드레아: 오늘 저녁 7시30분 남·녀 꾸르실리스타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3. 구역봉사자 모임: 1월 7일 저녁미사 후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임합시다
4. 예수성심회 월례회: 6일 어머니미사 후
5. 성전 건립기금 납입현황 공개: 3년동안 여러분께서 내주신 신축금 개인별 납입상태를 1월중에 공개합니다. 아직 완납하지 못하신 가정에서는 1월 25일까지 완납하세요
6. 대의원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각 구역장님, 사목회 임원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7. 신년도 교무금 신입하세요: 신년도 교무금 신입을 아직 못하신 가정이 많을니다. 속히 신입해 주세요
8. 중·고학생 예비자교리 안내: 매주(토) 오후 5시
9. 구역장 임명: 인후 8구역장에 이강섭 자매님
10. 금주의 전례: 해설-최명자, 독서-봉헌-배기창부부

차주의 전례: 해설-박중구, 독서-봉헌-손만술부부  
신자기도-최재인 부부, 촛불봉헌-안재홍 부부

□ 지난주 봉헌금: 601,830원 교무금: 2,610,000원  
신축금: 104,000원 성탄봉헌금: 1,115,505원  
아파트 성탄봉헌금: 437,690원 봉헌금: 225,120원  
교무금: 770,000원 신축금: 577,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1. LM 연총친목회: 7일(수) 저녁 7시
  2. 제대회: 8일 오전 10시미사
  3. 어머니성가대 월례회: 9일 오전 11시
  4. 예비자교리: 수녀님반 11일부터 시작  
신부님반-15일부터 시작
  5. 성우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6. 꾸리아 화합: 다음주일 오후 2시
  7. 50주년 기념행사 및 본당 공사현금  
복자신협-50만원, 6만5천원-강영애, 5만원-이원재, 3만원-육덕숙, 2만원-박금례·차영희·박석복·윤옥근·강진자·김금옥, 1만원-김판례·박중기·양오복·강귀재·이옥련·고기만·권준순·육숙희·이상길·고정숙·오준일·박승규·송인섭·강대창·남준자, 5천원-김홍자·김정례·이정자·문분님·고석오·송복순·김귀남 3천원-김복녀, 계-483,000원, 누계-35,002,000원
  8. 금주 성당청소: 월-사도의 모후pr  
토-구세주의 모친pr
  9. 금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천 진 ②이상인  
봉헌-강희술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김인석, 독서-①육경수 ②정진협  
봉헌-안운정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97,480원 교무금: 694,15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 정 우

- ☆ 1987년 교구 사목지침: 성체와 교회의 해 성체안에서 교회공동체의 성화를 도모합니다
- ☆ 차치교구 설정 50주년 기념의해: 50주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1. 새해에는 신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2. 사목회: 공식미사 후
- 3. 교무금 자진신입 아직 하지 못하신 분: 사무실에 신입해 주세요

4. 전년도 교무금 미납되신 분: 속히 완납해 주세요
5. 감사: 특별헌금-김정수(10만원)
6. 50주년 헌금: 2만원-남창덕·오철규·유순천, 1만5천원-남현준, 1만원-김재영·이종운, 5천원-김정남·이영만·박삼석, 3천원-김봉길·노기주
7. 87년도 순정이 은인을 구합니다: 사무실에 접수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 덕 창  
사무실 " 사목회장 김 환 용  
수녀원 2-2276

1. 꾸리아: 오늘 오후 3시
  2. 다음주 모임: 반장님 월례회·프란치스코 형제회
  3. 예비자교리: 2월 1일부터 실시하오니 1월 25일까지 교우분들은 예비자 1명씩 인도바랍니다
  4. 감사: 성탄 꽃대금 1만원-익명, 불우이웃을 위해 쌀 2가마 기증-익명, 성모상 협조 10만원-본당 성탄영세자 일동, 평화동성당 신축헌금 10만원-익명
  5. 금주전례  
본 당: 해설-고정수, 독서-①강기호 ②유용산  
봉헌-제7반장 가정  
평화동: 해설-문치구, 독서-①정형석 ②박형석  
봉헌-제8반장 가정
  - 차주전례  
본 당: 해설-고현주, 독서-①김한기 ②장현주  
봉헌-제8반장 가정  
평화동: 해설-함문권, 독서-①박병환 ②김나섭  
봉헌-박중구 부부
- 지난주 봉헌금: 본당-334,560원 평화동-107,360원  
계-441,920원 성탄절 특별헌금: 791,3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상 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베치아 사무실 83-5085번

1. 사목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10일 오전 11시
3. 자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예비자교리 안내  
일요일(성인반) 1월 2주부터 시작  
(학생반) 1월 2주부터 시작  
수요일(직장인) 2월 1주부터 시작
5. 베소라성서: 희망자는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무료)
6. 50주년 헌금: 아직 신입 안하신 분은 속히 신입바랍니다
7. 사무실 여직원: 오미경(루치아)  
앞으로 수고 많이 하시겠습니다
8. 86년 교무금 미납하신 분은 속히 내주시고  
87년 교무금 신입해 주세요
9.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기정희, 독서-①배한수 ②이주영  
8시 30분: 해설-최윤정, 독서-①유공수 ②노병섭  
공식미사: 해설-최중만, 독서-①정우진 ②김홍기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1. 예비신자 모집: 개강-1월 11일
  2. 축하합니다! 새 브레시디움 탄생: 인자하신 모친 단장-송명섭, 부단장-고창선, 서기-이만순  
회계-박영애
  3. 로사리오 꾸리아: 오늘 공식미사 후
  4. 글라라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744,310원 교무금: 2,557,000원  
성탄봉헌금: 1,361,930원